

# 성경, 어떻게 나눌 것인가?

김명혁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의 하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 주는 책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자이며 교사이며, 또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1. 성경을 전해 받은 조선 사람들

이와 같이 가장 큰 선물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있다. 독일 할레 출신인 개신교 선교사 카알 귀츨라프가 1832년 마카오에서 암헤르스트경 호를 승선하여 중국의 산둥 해안을 방문한 후 황해도 서해안을 거쳐 충청도 서해안에 도착했다.

그는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그 곳 주민들에게 중국어 성경과 전도문서를 나누어주고 아울러 감자를 심어주고 간 일이 있었다. 귀츨라프의 조선 방문은 극히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조선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어쨌든 이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첫 방문사업도 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조선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전해 준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토마스였다. 귀츨라프의 조선 방문으로부터 33년이 지난 1885년 9월,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지후로부터 목선을 타고 조선 서해안에 도착하여 그 곳에 두 달 반 동안 머물면서 중국어 성경책을 그 곳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때 조선 사람들은 ‘목 잘릴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책을 받았다고 한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이듬해인 1886년 또 다시 중국의 지후로부터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 호를 타고 9월 초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까지 올라왔다. 조선 병사들의 포화를 입어 배는 불타고 선원들과 함께 토마스 선교사도 피살되었으나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까지 그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조선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893년, 사무엘 마페트 선교사는 학습교인 반을 조직할 때 토마스 선교사에게서 중국어 신약성경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한다.

## 2.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세워진 한국 교회

한국교회는 그 초기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주력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인 사경회로부터 한국교회는 탄생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부흥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사경회로부터 일어났다.

“1907년 신년집회에 1,500여 명의 신자들이 평양 장대현교회에 모여 성경공부와 기도의 모임을 갖는 동안 참석자들은 모두 소리내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이때 그들은 진정한 오순절적 축복을 경험했다.”

1907년 부흥운동에 광신적 요소가 없었고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중요한 이유는 그 부흥운동이 성경에 기초를 둔 부흥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 이후에도 성경에 기초를 두고 기도로 뜨거워진 교회로 성장해 왔다. 길선주 목사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고 묵시록을 암송하는 것으로써 하루의 생활을 시작했다.” 주기철 목사의 목회 사역도 “기도와 성경 읽기에 주력한” 사역이었다. “주목사는 성경을 읽으며 비상한 고심과 정성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철야기도를 하고 이슬에 젖은 몸으로 새벽에 집으로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 3. 성경을 나누어주는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이제 전해받은 성경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데까지 이르렀다. 지금 지구상에는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성경을 소유하기가 힘든 곳이 많이 있다.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수많은 모슬렘 나라들이 그러한 나라들이다.

필자가 부이사장으로 있는 ‘소련선교회’(이사장 박원섭)는 그 동안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인들이나 현지의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어 성경을 많이 전해주었다. 88올림픽 때는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인들에게 2,660여 부의 성경책을 전해주었고, 89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인들에게 36,000여 부의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으며 90년에는 세계침례교 대회에 참석한 구소련 침례교단 대표들에게 100,000여 부의 성경책을 전달해 주기도 했다. 우리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성경책 및 전도책자 보급을 통한 현지 선교를 계속해 오고 있다.

타쉬켄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수복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초,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지역 선교사 협의를 통해서 공급한 성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러시아어/한글신약 대조 성경 350부를 기증받았으며, 인편을 통해 한글성경(성경전서) 100여 부를 기증받아서 선교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1992년 이후 계속해서 러시아어 성경과 한글 신약전서를 이곳의 각 교회별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부터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러시아성서공회의 성서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1993년 이곳에 러시아성서공회 타쉬켄트 지부가 개설되어, 러시아어 성경을 필요한 대로 구입하여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즈베크어 성경 구입 및 보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모스크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허충강 선교사는 “모스크바에 소재하고 있는 러시아 성서공회는 자체 인쇄소가 없어서 일반 인쇄소 두 곳에 의뢰하여 성경을 인쇄하고 있

습니다. 현재 약 20종류의 성경전서, 신약전서, 단편성서 등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1991년부터 성서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자체적으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1월부터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성서공회의 성경 반포사업을 위해서 한국 성서공회에서도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성서공회의 출판 책임자가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성서공회를 방문하여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 단체들이 보내주는 성경들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러시아에 성경이 안 들어간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정보만 있다면 그리고 구입할 비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비용만 있으면 다소 가격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성경 구입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성경보내기 운동이 구소련 선교에 미친 영향이 큼니다. 저 자신이 그 운동에 혜택을 누린 자요,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다.

위의 보고에서 보는 대로 그 동안 대한성서공회와 소련선교회 그리고 각종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의 위함을 무릅쓴 헌신적인 사역으로 성경이 구소련 각지에 보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구소련 안에도 아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또는 전달자의 부족으로 성경이 현지인들의 손에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는 정부 당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서적 특히 종교 서적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1987년 중국 남경에 설립된 애덕인쇄소에서 중국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인쇄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곳에서 인쇄한 성경이 지난 해 이미 1천만 부를 넘었고, 또 금년에는 대한성서공회의 지원으로 한글 성경 10만 부가 인쇄되어 조선족 동포들에게 전해진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북한은 성경의 전달은 물론 성경의 소유가 금지된 나라이다.

한국교회가 위함을 무릅쓰고 찾아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거저 받은 성경을 이제는 위함을 무릅쓰고라도 세계 곳곳에 찾아가서 거저 전해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성서한국> 1996년 겨울 42권 4호)